

신 앨 고어 전 미국 부통령께 경의와 함께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최근 칸 영화제에서 고어 전 부통령께서 밝힌 입장에 동의합니다. 한 나라의 대통령이 기후변화의 움직임을 멈출 수는 없습니다. 하나의 권력이 기후변화를 멈출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가 그저 가만히 있거나 탄소거래를 통해 기후변화를 상업화하는 틀에 갇혀 있어야 한다는 것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기후변화에 관련된 국제협약 중 하나인 2015년 기후협정은 논의의 구조를 변화시키고 과거 교토의정서가 규율해 온 탄소배출 감소를 지지합니다. 이제는 파리협약에서 정해진 탄소배출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전 세계적 노력을 경주해야 할 때입니다. 여러분에게 적극적으로 기후정의 운동에 참여할 것을 당부 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지난 수십 년간 누적된 온실가스 배출로 대기권을 파괴해 온 선진국들도 기후변화에 대한 인식을 재고해야 합니다. 지금은 선진국들이 온실가스 배출로 인한 그들의 부채를 해결해야 할 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요 원칙으로 온실가스 배출을 측정하는 또 다른 방법을 고려하고, 개인당 배출 속도를 동일하게 할 수 있는 국제적 협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지구상의 개인들은 누구나 동일하게 대기권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로부터 72년 전인 1945년 6월 1일은 수카르노 대통령이 역사적인 연설을 한 날입니다. 이 연설에서 그는 '판차실라'를 제시했습니다. 판차실라는 나중에 인도네시아 공화국의 근본 원칙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판차실라는 다섯 가지 원칙을 의미합니다.

첫째, 신에 대한 믿음입니다. 모든 이들은 어떤 종교적 이기주의 없이 문화적으로 신에 대한 믿음을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신에 대한 믿음, 고귀한 인격, 서로에 대한 존중을 의미합니다. 둘째, 공정하고 문명화된 인류애입니다. 이 원칙은 민족주의를 발취합니다. 민족주의는 자유운동이고 억압에 대한 해법이며 자유에서 비롯된 위대한 영감입니다. 이 원칙을 통해 인도네시아는 인도네시아뿐 아니라 다른 국가들을 위한 정의와 번영을 이루기 위해 헌신하고 있습니다. 우리 민족주의자들은 우리나라와 다른 나라를 함께 사랑합니다. 셋째, 인도네시아의 단결입니다. 이 원칙은 서로를 굳건히 끌어안아야 할 필요성을 보여줍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민족주의가 국제주의로 여겨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민족주의와 국제주의 간에는 갈등이 없습니다. 국제주의의 원칙을 통해 모든 국가는 큰 나라든 작은 나라든 다른 모든 국가의 권리를 존중하고 지켜줍니다. 국제주의를 통해 국가는 인종 우월주의, 국수주의, 세계시민주의를 벗어나 성숙하고 책임감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넷째, 협의와 의견 일치입니다. 즉 민주주의입니다. 민주주의는 서구가 독점하거나 서구가 만들어낸 사회적 원칙이 아닙니다. 민주주의는 특정한 사회적 조건에 따라 시행 과정에서 변화를 겪기도 했지만, 인간 본래의 조건입니다. 다섯째, 사회정의는 사회복지와 연결되어 있고 분리될 수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판차실라입니다. 신에 대한 믿음, 민족주의, 국제주의, 민주주의 그리고 사회정의. 이것이 인도네시아 민족의 삶의 방식입니다.

판차실라는 삶의 중추적 지도원칙이자, 정신적으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그리고 문화적으로 우리가 쟁취해야 할 원칙입니다. 판차실라가 보편적 의미를 지니고 있고 국제적으로 실행될 수 있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21세기를 함께 살아가기 위한 해법에 이르는 정신이자 원칙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아무도 증오와 갈등을 줄은 세대로 이전하기를 바라지 않는다고 믿기에 갈등과 분규에 대해서는 평화의 길을 택하는 행동을 취할 수 있다고 믿고 있고, 그렇게 되기를 희망합니다. 세계평화에 기여하는 수단으로서, 빈곤과 억압을 종식시키는 진지한 노력의 하나로, 여러분에게 판차실라 원칙을 아시아 국가의 삶의 방식으로 제안합니다. 지금 그리고 다가올 시대에 아시아가 판차실라 정신으로 세계의 정의와 사회복지를 이루기 위해 싸워 나갈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 [ 세계지도자세션 기조연설Ⅱ ]

아니발 카비코 실바 전 포르투갈 대통령



## 동아시아 안보·번영의 돌파구, 유럽과의 협력에 있다

우리는 국제정치 및 경제질서의 측면에서 엄청난 불확실성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보호무역주의의 징후가 나타났고 세계화는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지정학적 환경의 악화도 느껴집니다. 일부 국가들은 군사비 지출의 증대를 준비 중입니다. 사이버 위협도 증가했습니다. 대중 영합적 정치는 세계 여러 곳에서 기반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제 환경 속에서 아시아의 평화, 안보, 번영은 시의적절한 주제입니다.

유럽연합과 동아시아의 관계 강화가 이 지역의 안보와 번영에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유럽연합은 세계에서 가장 큰 경제구역으로 미국보다도 넓고, 수출입 규모로 봐도 세계 최대의 무역 강대국입니다. 전 세계 100여 개 이상의 국가들에게 유럽연합은 최대의 수출시장입니다. 유럽연합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평가되어야 하는 것은 유럽의 핵심인 유로 존입니다. 하나의 중앙은행, 단일 화폐인 유로, 단일한 금융정책을 19개국에 공유하고 있습니다. 유로 존이 붕괴하리라는 생각은 잘못된 것입니다. 한 국가가 유로 존을 탈퇴하면 그 부정적 여파가 너무 커서 어느 정부도 그런 결정을 내릴 수 없을 것입니다. 영국은 유럽연합에 속하지만 유로 존에는 속하지 않습니다. 브렉시트 협상은 매우 힘들 것이며 영국은 다른 27개 회원국보다 더 큰 대가를 치르게 될 겁니다.

장래에 더 많은 국가들이 유로 존에 가입하리라 확신합니다. 저는 포르투갈이 유럽연합에 가입한 이후 10년간 포르투갈 총리직을 역임했습니다. 그리고 단일경제, 통화조약 협상의 핵심적 부분에 참여했기 때문에 이 위대한 성취가 국제 금융체제에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알고 있습니다.

유로는 달러와 함께 이미 국제결제통화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중국은 유럽연합이 강해지고 유로화가 국제통화가 되기를 바라고 있음이 분명해졌습니다. 유럽연합이 국제사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제대국이



되는 것이 중국의 이해에도 부합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국제문제에서 미국이 행사하고 있는 영향력을 줄이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유럽에서는 일관된 공통의 이해와 가치에 근거하여 역내 질서를 창출해 냈습니다. 아시아에는 여러 국가들을 묶을 수 있는 일관된 역내 질서가 없습니다. 양자관계가 지배적입니다. 동아시아 국가 간 정치적 대화와 협력의 범위는 매우 제한되어 있고 오해와 갈등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북한 핵 문제는 미국과 중국의 조정 없이는 해결될 수 없습니다. 양국 모두 북한이 핵 개발을 포기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양국은 이 지역의 지속가능한 안보를 보장하기 위한 전략에 합의하지 못했습니다. 중국은 북한 체제의 도발적 행동을 묵과해 왔습니다. 그러나 북한의 군사도발에 관한 한 중국은 허용할 수 없는 최저선을 가지고 있다고 확신합니다. 중국은 핵 개발로 국제사회의 비난

을 받는 이웃 국가 때문에 자국의 경제, 사회적 발전과 국제사회에서의 지도력이 위협받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동아시아 국가들과 유럽연합의 협력 증진이 이 지역의 안보와 번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굳게 믿습니다.

동아시아 지역에서 이미 미국이 차지하고 있는 힘의 균형 구도에 유럽연합이 참여하는 것은 이 지역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유럽연합 자체가 이 지역에는 가치 있는 자산이라고 확신합니다. 유럽연합은 평화, 자유, 민주주의를 강하게 옹호합니다. 세계의 주요 상품과 서비스 제공 지역으로서 유럽연합은 국제정치 현안에 대하여 자신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유럽연합은 이란과 핵 문제 타결 협상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 바 있습니다.

유럽연합은 다자 간 자유무역을 옹호하고 세계무역기구의 질서를 존중합니다. 유럽연합은 파리기후협정 실행을 앞장서 지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유럽연합은 신뢰할 수 있는 동반자입니다. 유럽과 동아시아의 경제적, 정치적 관계는 이미 굳건합니다. 유럽연합과 중국은 전략적 동반자관계를 맺었고, 유럽연합은 중국의 가장 중요한 수출시장입니다. 유럽연합과 중국의 포괄적 투자협정에 대한 협상이 진행 중입니다.

유럽연합은 한국과도 전략적 동반자관계와 자유무역협정을 맺고 있습니다. 유럽연합은 한국의 세 번째 수출시장입니다. 현재의 정치적 상황에서 미국과 별개로 동아시아에서 유럽연합이 더욱 적극적 역할을 한다면 한국이 이 지역 안보문제에 관하여 더 큰 목소리를 낼 수 있을 것입니다. 유럽연합과 일본은 자유무역 및 전략적 동반자 협정에 관한 협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유럽연합이 주요 정치적 이슈, 국제 문제에 대한 중국, 한국, 일본과의 동반자관계를 강화한다면 더 긴밀한 협력이 가능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동아시아가 보다 협력적인 체제로 변화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 [ 세계지도자세션 기초연설Ⅲ ]

훈살마 오치르바트 전 몽골 대통령



## 부산-몽골-유럽 잇는 번영의 '실크로드 익스프레스'

제주포럼에서 세계 리더들이 '아시아의 미래 비전 공유'라는 주제로 우리가 처해 있는 과제와 공통 목표에 대한 전망을 구체화하여, 실현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21세기는 '아시아의 세기'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계 발전에서 아시아의 위상과 역할이 해마다 높아지고 있습니다. 아시아의 면적이 세계 대륙의 30%를 차지하고 있고, 전 세계 인구의 60%는 아시아 48개 국가에서 거주하며, 아시아 국가들의 세계 GDP 비중도 5분의 1에서 3분의 1까지 급증했습니다. 세계에서 이 모든 것을 '아시아의 기적'이라 평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과 시련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반복하지 않고, 그간의 성과와 현재 도달한 수준을 자랑스럽게 여겨 우리가 가진 무한한 잠재력을 이용해 번영 비전을 구상하고, 실행 방안과 메커니즘을 모색하는 것이 효율적이며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시아 국가들은 평화를 지키고, 안정을 지속적으로 보장하는 데 공동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평화 없이 안정적인 번영이 없고, 번영 없이 평화를 강화시킬 수 없다는 사실을 인류는 잘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제주포럼의 의제인 아시아의 미래를 평화와 번영과 연결시킨 것을 지지하며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2015년에 체결한 유엔기후변화협약의 2030 지속가능 발전의제는 세계 미래 발전의 기초를 마련하는 중대한 협정입니다. 이 기회를 빌려, 몽골 국회에서 파리기후협정을 비준하고 2030년까지 몽골의 지속가능 발전 활동 계획을 수립한 것을 알려드리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

경제 안정화를 통해 안정적인 평화를 보장받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광범위한 협력이 필요합니다. 다각적인 교류협력을 통해 지식으로 공유하여 보급하고, 기술과 재정 자원을 충분히 활용하